

중년기의 노부모 부양의식 및 부양행동평가와 개인의 노후설계간의 관계성 탐색

전혜성

(미국 조지아주 AARC)

김미영*

(숭의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노부모 부양의무 수행’과 ‘자립적 노후설계’라는 이중적 잣대의 모순적 발달과제를 요청받는 현대의 중년기들이 갖는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식 및 부양행동 평가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이러한 부양의식 및 평가가 개인의 노후설계라는 현실적인 과업들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개의 온라인 대학의 재학생 중 중년기에 해당하는 323명의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연구 결과 첫째, 조사대상자의 노후설계 및 부양의식은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부양행동평가 중 보상은 중간 수준, 비용의 경우는 중간수준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 둘째, 노후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전통적 가족관에 근거한 부양의식은 노후설계 각각의 하위영역인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하위영역에 모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교환적 관점의 실리적인 입장에서의 부양행동평가는 보상만이 신체적 노후설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배우자유무는 노후설계 전 영역에, 성별은 신체적·정서적 노후설계에, 연령은 정서적 노후설계에의 영향력이 유의하였다. 이 외 월가구소득은 경제적 노후설계에, 자녀수는 신체적 노후설계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중년기의 균형적인 노부모부양 역할수행 및 자립적인 노후설계에 대한 현안을 제안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시사점도 제시하였다.

주요용어: 중년기, 부양의식, 부양행동 평가, 노후설계

* 교신저자: 김미영, 숭의여자대학교(kmy1012@naver.com)

■ 투고일: 2012.4.30 ■ 수정일: 2012.6.11 ■ 게재확정일: 2012.6.22

I. 서론

향후 65세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초과한다는 초고령 사회의 임박을 예고하는 사회적 인식 및 담론 속에는, 원하던 원치 않던 간에 개인의 노후는 개인이 대비하고 책임질 수밖에 없는 형편임을 설득하는 상황적 논리가 내재되어 있다. 초고령 사회의 예고에는 노년층이 급증함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의 이슈가 제기될 뿐만 아니라(강인 외, 2009; 홍성인 외, 1998), 개인 및 가족적 차원에서 건강 및 생활비용 문제, 부양부담 등의 심리적, 경제적인 난제로 개인의 삶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국가와 개인은 노후에 대한 대비대책, 즉 실제적인 노후설계를 필수불가피한 과제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노후에 대한 인식은 다양한 연령대에 시작될 수 있고 실제로 노후설계가 비교적 젊은 연령대에서 시작할수록 바람직하다는 인식은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있지만, 특히 중년기를 앞둔 중년기의 노후설계는 노부모 부양이라는 또 다른 과제를 동시에 동반하고 있어서 더욱 민감하고 과중한 과제일 수 있다(이호정, 2008). 즉, 중년기는 자신의 노후설계와 노부모에 대한 부양부담도 공존하는 이중부담 및 이중과제의 시기이다. 이들은 노부모에 대해서는 가족부조 가치기반의 이타적 부양을, 자기 노후에 대해서는 독립적 가치기반의 자립적 자가부양이라는 상반된 가치를 요구받는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중년기는 노부모 부양과 자신의 노후 대비를 위해, 노인기의 욕구 충족과 문제 해결을 위한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측면의 다각적인 지식과 현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된다. 이 때 신체적인 지원은 노화에 따라 꺾게 되는 노인의 신체적 기능저하를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 보살핌과 시중을 제공하는 것이고(이가옥·이미진, 2000), 정서적 지원은 상호 이해 기반을 바탕으로 상호 이해 기반을 바탕으로 감정적 교류와 대화를 나누는 정서적 기능을 의미한다(민무숙, 1995). 경제적 지원은 노인의 생계유지 및 자아실현과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이신숙·서병숙, 1994). 이러한 노후준비 영역의 복합성을 고려할 때, 그것이 노부모에 대한 부양이든지 아니면 자신을 위한 노후준비이든지 간에 장기간의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 과정임을 틀림없다(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001; Sheehy, 2010).

그런데 중년기가 당면한 ‘노부모 부양의식 수행과 자립적 노후설계’라는 이중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여러 가지 이슈 및 이해관계가 서로 긴밀하고 민감하게 얽혀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먼저 현시대를 살아가는 중년기 성인에게 있어서 노부모 부양의식과 자립적 노후설계라는 과업은 어느 수준에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두 과제는 서로 어떠한 관계로 양립하는가? 이다. 즉, 전통적인 가족관 및 효사상에 근거한 노부모 부양의식이 확고할수록 자신의 노후준비에 적극적인 것인가? 아니면 사회교환적 관점에 근거하여 실리적 입장에서 노인 부양문제를 평가할 때 자신의 노후준비에 더 적극적일 것인가? 등이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도 중년기의 노후준비 및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식 등에 중요성을 인식하여 다수의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사실상, 노인의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길어진 부모-자녀관계 및 노인부양 문제로 인해 노년기의 세대간 지속성과 지원에 관한 연구(신화용 외, 1997)는 지난 25여년간 국내외의 노년 연구에서 주된 초점이 되어왔다(강인 외, 2009; 김성숙, 2006; 김숙, 2004; 이가옥·이미진, 2000; 최윤희, 2004; Abel, 1986; Ronald et al., 2011; Rossi & Rossi, 1990; Scanzoni, 1995; Walker et al., 1990). 중년기의 부양의식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는 대부분 현 시점에서의 중년기 성인들이 갖는 노인 부양관 및 부양의식 혹은 부양의식에 대한 영향요인이 주를 이룬다(김숙, 2004; 이가옥·이미진, 2000; 이호정, 2008; Abel, 1986; Rossi & Rossi, 1990; Scanzoni, 1995; Walker et al., 1990). 또한 노후설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노후생활에 대한 의식 및 준비 활동, 생활계획 등의 조사 및 노후설계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강인 외, 2009; 김성숙, 2006; 최윤희, 2004; 홍성희 외, 2008).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중년기의 노부모 부양과 노후설계 의식 및 활동에 대한 중요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중년기에게 이중으로, 동시에 요구되는 이중부담인 ‘노부모 부양과 노후설계’에 대해 초점을 맞추지 않아서, 이 두 가지 과업을 동시에 고려한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통해서는 중년기가 지각하는 부양의식과 노후설계에 대해 각각 단편적인 지식을 제공받을 수는 있으나, 양자 간의 상호 관련성은 어떠한지, 특히 전통적인 부양의식과 사회교환론적 입장의 부양행동 평가 중 어느 것이 더 자립적 노후설계에 영향력을 갖는가 등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이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부모부양과 자주적 노후설계’라는 상반된 가치 및 역할을 요구받는 현시대의 중년기 성인들이 노부모 부양의식 및 부양행동 평가, 노후설계라는 개념들이 어떠한 관계하에 양립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전통적 효사상에 근거한 노부

모 부양의식과 사회교환론적 관점에 근거한 부양행동평가가 개인의 노후설계에 어떠한 영향력을 갖는가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우리사회가 지양해야 할 노인부양과 자신의 노후설계가 어떻게 수용적이고 합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중년기에게 요구되는 이중부담의 대안에 대해 바람직한 사회적 답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목적을 위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연구질문 1.

중년기의 부모 부양행동 평가, 부양의식 및 노후설계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질문 2.

중년기의 노후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II. 문헌고찰

1. 주요 개념

가. 노부모 부양의식

부양이란 노부모에게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경제적, 정서적, 신체적인 지원을 비롯한 일체의 도움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노후생활에서 부모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가족과 관련된 개인의 의식 또는 역할에 대한 인식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적인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란 자신이 속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실체와 역할을 찾아나가는 인간의 사고 과정을 구체화하는데 초점을 두는 입장이기(신수진, 1993), 부모 부양에 대한 의식도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입장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양의 형태는 경제적, 정서적, 신체적 지원으로 구분되는데, 경제적 지원은 노부모가 필요로 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단순히 의식주 해결 등의 생계유지를 넘어서 빈곤 및 질병, 여가활동, 더 나아가 자아실현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도 포함된다(이신숙·서병숙, 1994). 정서적 지원은 노부모와의 질적

인 접촉과 지지, 격려를 비롯하여 서로 마음을 알리고 이해할 수 있는 감정적 교류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민무숙, 1995). 한편, 신체적 지원은 노화에 따라 겪게 되는 노인의 신체적 기능저하를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 요리, 청소, 목욕, 이동보조 등 보살핌과 시중을 제공하는 것이 해당된다(이가옥·이미진, 2000). 이러한 부양의 개념에 근거한 부양의식이란 자녀가 부모의 노후를 돌보아야 한다는 의식으로 노부모 부양관(김성숙, 2006), 부양 책임의식, 부양 의무감, 부양태도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김숙, 2004).

나. 부양행동 평가

부양행동의 평가 개념은 사회교환론적 이론에 근간한다. 사회교환론적 입장에서는 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이 부모와 성인자녀간의 암묵적인 거래관계에 기반하여 형성되고 유지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사회교환론적 입장은 전통적인 효사상이나 가족중심의 가치관을 설명하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입장과는 상이하게 다른 관점에서 노부모와 성인자녀의 관계를 설명한다. 노부모와 중년기 성인의 관계를 사회교환론에서 볼 때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거나 효행을 하는 이유에는, 과거에 입은 은혜에 대한 보답, 현재 제공받고 있는 것에 대한 보상, 사회적으로 효행자라는 인정을 받으려는 동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간주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서적, 시간적, 물질적, 육체적 스트레스 등이 발생하는데 이를 비용으로 설명한다(신수진, 1993).

이 이론에서는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상을 최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행동 혹은 관계를 선택한다는 것이다(김명자, 1991). 여기서 합리성을 최대화하기 위한 보상(reward)이란 상호작용하는 개인 및 대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긍정적 강화로서 심리, 사회, 신체, 물질적인 것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며, 비용(cost)이란 상호작용시 특정 상황을 선택함으로써 잃게 되는 시간, 돈, 지위, 관계 등과 이에 따른 심리적 불편함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사회교환론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수반하는 노인부양 문제에 대해 현실의 정확한 이해와 설명을 제공하며 실제적으로 노인문제 해결의 지침마련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평가도 있다(박재홍, 1991).

보상은 노부모를 부양하거나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득에 대한 자녀의 평가이다. 보상의 영역에는 경제적 보상, 서비스적 보상, 사회적 보

상, 정서적 보상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경제적 보상이란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거나 유산을 기대하는 것, 서비스적 보상은 부모로부터 손자녀들보기 및 가사서비스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 사회적 보상은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인맥 등의 사회적 기반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 마지막으로 정서적 보상은 부모부양을 통해 보답할 기회를 갖는 것이나 부모와의 접촉을 통해 안정감 및 소속감 등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용이란 노부모를 부양할 때 감수해야할 것이라고 지각되는 어려움에 관한 것이다. 비용이 발생하는 하위 문제로는 금전적 어려움, 내 자신의 가족과 함께할 시간의 감소, 부모 부양과 내 가족 사이의 역할 갈등, 개인적인 시간의 손실, 친구 및 이웃 등과의 사교기회 감소, 내 직업생활에 제한, 육체적인 소모, 배우자와의 갈등, 부양과정에서의 복합적인 스트레스 발생으로 인한 정신적 피곤함 등이 다(신수진, 1993).

다. 중년기의 노후설계

중년기의 범위는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30~40대에 시작하여 60~70세 사이로 잡는 경향이 있다. 과거에는 중년기를 청년후기 이후인 36세부터 시작하여 60세가 넘으면 노인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Levinson은 인생주기모형을 통해 신체적 능력이 감퇴되기 시작하는 한편 다양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게 되는 성인중기를 40세에서 65세로 정의하고 있다(이효선·Garz, 2009 재인용). 이 외에도 최근 건강수명의 증가 및 교육수준의 증가, 여성사회활동의 증가 등으로 인해 전체적인 발달시기를 10년정도 늦추어야 한다는 관점이 대두되고 있으며(오창순 외, 2010),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구분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40세에서 65세 미만까지로 중년기를 정의하고자 한다.

한편, 이러한 중년기가 노후를 위해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사회정책적인 중요성을 갖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의 경제적인 노후준비가 미흡한 상태로 노인이 된다면 미래 사회는 큰 경제적 부담을 안아야 하는 반면에, 현실적인 수준에서 노후준비가 이루어졌다면 노년기에 직면할 경제적 문제나 위기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미래 사회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박창제,

2008). 중년기의 노후설계란 중년기 성인이 자신의 노후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노후설계의 개념은 노후준비 및 생활 설계 등의 개념과 때로 공용 또는 혼용되어 사용되기는 하는데, 이들 개념 간에 노후를 대비를 위한 대비대책이라는 공통적 의미는 존재하지만 각 개념의 설명은 조금씩 다르다. 즉, 노후준비는 노후에 필요한 자원들을 마련하는 과정이면서 궁극적으로는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삶의 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원확보 과정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이동욱, 2003). 한편, 노후 생활설계는 노년기 생활에서 가장 필수적인 경제적 자원과 주거를 누가 부양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는 개념으로, 이와 같은 안정된 부양형태 확보를 통하여 노년기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홍성희, 1998). 노후 생활설계의 개념에서는 부양의 주체가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이 때 부양의 주체는 노인 자신일 수도 있지만 가족을 비롯한 다른 보호제공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노후설계와 노후준비 및 노후 생활설계의 개념을 비교하자면, 노후설계는 상대적으로 자신의 노후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에 해당되는 계획단계의 속성이 강하며 부양의 주체가 노인 자신이 되는 자립성에 더 비중을 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후설계와 관련된 개념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주로 경제적 준비 측면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근래에는 노후설계에는 경제적 준비뿐만 아니라 신체적 및 정서적 준비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포함되어 있다. 경제적 노후설계는 노년기의 경제력 상실 및 저하의 문제와 건강문제로 발생하는 의료비 지출부담, 여가 및 취미활동 등으로 인한 비용 부담에 대한 노후대책이다(범수인, 1992). 사실상 경제적인 문제는 세대 간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노후대책이나 비축이 없이 노후를 맞는 노인은 빈곤상태에 빠지게 되어 결국 자녀에게 생활 전체를 의존하게 되어 자녀의 노인 부양부담을 가중시키고 그로 인한 가족 간 갈등이 심화되기도 한다(임경자, 2002). 신체적 노후설계는 노화로 인한 신체의 기관과 기능의 쇠퇴로 발생하는 신체적인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별거노인 중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는 가장 절실한 요인도 건강문제로 아플 때 돌보아줄 사람이 없는 것으로,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이우복, 1993), 신체적 노후설계에는 영양관리 및 식생활 개선, 음주 및 흡연을 절제하며,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생활로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고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이가옥, 1990). 정서적 노후설계는 노년기에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사건들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을 미리 예측하고 이에 대한

조절 및 대비를 하는 것이다. 즉, 노년기에는 은퇴, 사회적 역할 축소, 경제능력의 상실, 배우자 사별, 중요한 타자들의 죽음 등의 요인 등으로 공허감과 인생에 대한 회의 경험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의미있는 대인관계의 유지 및 사회적 지지를 통하여 대처하자는 것이다. 특히, 정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과 같은 사회적 지지체계의 활용은 물론, 일, 여가활동,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습득 등이 전 생애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개인의 안정된 정서적 노후설계에 많은 도움이 된다(윤진, 1995).

2. 노부모 부양의식 및 부양행동 평가가 개인의 노후설계에 미치는 영향

김성숙(2006)의 연구에서는 기혼의 중년기 남성의 노부모에 대한 동거여부 및 부양비 부담과 관련된 부양의식에 따른 자신의 노후생활계획과의 연관성을 조사한 결과, 두 변수간에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었다. 한편, 노부모의 집안일을 도와주는 부양의식이 가질수록 자신의 노후에 대한 정서적 준비도가 높았다.

기혼의 중년기 여성의 경우에는 노부모에 대한 동거여부에 상대적으로 수용적인 부양의식을 가진 부인일수록 따른 자신의 노후에 대한 높은 경제적 준비도를 나타냈다. 또한 노부모의 사적인 일이나 집안일을 도와주는 정도에 따라 부인의 노후생활계획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 부인의 정서준비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신체준비도 및 경제준비도에는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노후 및 노인부양 이슈에 대해 사회교환론적 입장에 근거한 보상과 이득의 개념이 실제적으로 노인문제 해결의 지침마련에 대한 중요한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의견이 있다(박재홍, 1991). 최근까지도 노인 부양행동에 대한 보상과 이득에 대한 평가가 개인의 노후 준비와 설계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되지 않아서 이와 관련된 연구도 추가로 검토하였다. 전귀연과 배문조(2010)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과의 직접적인 동거 및 접촉경험이 노후준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과 보다 긍정적인 경험한 사람이 노인 부양행동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결국 자신의 노후준비에도 보다 적극적인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유사한 연구결과로, 노인과의 동거경험이 부정적인 사람이 보통인 사람보다 경제적 준비의식이 높게 나타났고, 주거 준비의식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동거 경험이 있는 경우 노인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고(이

정희 외, 2007) 이로 인해 노후준비에 대한 의식도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노인과 동거하면서 노인기에 당면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알게 되어 노후의 경제적 준비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전귀연·배문조, 2000). 또한 노인관련 언론매체에 대한 관심이 많을수록, 관심이 적은 경우보다 노후준비시기, 노후의 국가정책에 대한 의식, 신체적 준비의식, 경제적 준비의식, 여가준비의식이 높은 것으로 제시하였다(전귀연·배문조, 2010). 이러한 결과는 노인 관련 언론매체를 자주 접할수록 노후준비의 지식 및 필요성에 대한 관련 지식의 증가하여 전반적인 노후준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2곳의 온라인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비확률적 표집 중 의도적 표집방법을 활용하였다. 사회복지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조사의 취지 및 내용,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2011년 5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실시되었으며, 이메일을 통해 총 325부가 수집되었다. 최종적으로 수집된 325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2부를 제외한 총 323부가 결과분석에 사용되었다.

2. 측정도구

가. 종속변수: 노후설계

본 연구에서 노후설계란 조사대상자가 자신의 노후생활을 위해 준비하고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배계희(1981)의 노후준비문항을 기초로 김성숙(2006)이 재구성한 노후생활계획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신체적 준비에 대한 6문항, 정서적 준비에 대한 8문항, 경제적 준비에 대한 5문항의 총 19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후에 대한 준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김성숙(2006)의 연구에서 각 영역별 신뢰도는 Cronbach's $\alpha=.693\sim.824$ 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877$ 이었다.

나. 부양행동평가

1) 보상(이득)

‘보상’이란 연로하신 부모님을 부양하거나 도와드림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이득에 대해 조사대상자가 지각하는 바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병은과 신화용(1991)에 사용된 문항을 참고하여 신수진(1993)이 제작한 7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문항들은 주로 미래의 부양행동을 통해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보상 혹은 예측 차원에서 구성되었으며, 상호호혜성의 원칙을 성인 자녀의 입장에서 해석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양행동에 대한 보상을 높게 기대함을 의미한다. 원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803$ 이었다.

2) 비용

비용이란 연로하신 부모님을 부양하거나 도와드림으로 인해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사대상자인 성인자녀가 미래 부양행동에 의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어려움을 알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조병은과 신화용(1991), 김송애(1990), Brody(1985)의 연구에 사용된 문항들을 참고하여 신수진(1993)이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총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신수진(1993)의 요인분석 결과 9개문항 전체가 단일 요인이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양행동에 대한 비용을 높게 예상함을 의미한다. 원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936$ 이었다.

다. 부양의식

부양의식은 미래에 직면하게 될 노부모 부양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생각과 계획을 의

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부양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임인혜(1987)가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제작하고 신뢰도, 타당도 검증을 실시한 노인부양의식척도를 사용하였다. 원칙도는 경제적 지원과 신체적 지원, 정서적 지원의 하위요인으로, 각 10문항씩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부양의식은 현재 실제적인 부양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 앞으로의 부양행동을 위한 계획차원에서의 부양의식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므로 규범적인 차원이 아닌 실제행동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의지를 살펴보기 위한 구체적인 부양행동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임인혜(1986)와 김송애(1990)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신수진(1993)이 수정, 보완하여 요인분석을 통해 22개 문항으로 축소한 것을 사용하였다. 척도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1개 문항을 제외하고 21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5점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원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하위영역별 .84~.90으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도 .945로 매우 높았다.

라. 인구사회학적 변인

본 연구는 조사응답자의 노후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의 영향력을 보다 명확히 검증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는 선행연구를 통해 노후설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 월가구소득, 자녀수를 설정하여 모형에 투입하였다.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노후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수집된 자료를 SPSS 17.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모형에 투입된 변수들의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둘째로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설계의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다. 셋째,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여 다중공선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자의 노후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사회학

적 변인, 부양행동평가의 보상과 이득 변인, 노인부양의식으로 독립 변인을 설정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성별, 연령, 결혼상태, 학력, 종교, 월가구소득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이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우선 성별을 살펴보면, 여성이 200명(61.9%)으로 남성 122명(37.8%)보다 많았으며, 연령의 경우 40대가 228명(36.7%)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결혼상태는 기혼이 263명(81.4%)으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323)

| 구분 | | 빈도 (%) | 구분 | | 빈도 (%) |
|------------------|---------|------------|-----------------------|------------|------------|
| 성 별 | 남 | 122 (37.8) | 연령 | 40~49세 | 228 (36.7) |
| | 여 | 200 (61.9) | | 50~59세 | 90 (14.5) |
| | 결측 | 1 (0.3) | | 60세 이상 | 5 (1.5) |
| 학 력 | 고졸 | 119 (36.8) | 종교 | 기독교 | 115 (35.6) |
| | 대졸 | 168 (52.0) | | 천주교 | 53 (16.4) |
| | 대학원졸 | 16 (5.0) | | 불교 | 52 (16.1) |
| | 기타 | 19 (5.9) | | 없음 | 82 (25.4) |
| | 결측 | 1 (0.3) | | 기타 | 15 (4.6) |
| 결 혼 상 태 | 미혼 | 31 (9.6) | 월 가 구 소 득 | 월 100만원 미만 | 10 (3.1) |
| | 기혼 | 263 (81.4) | | 월 100만원대 | 18 (5.6) |
| | 이혼 및 별거 | 11 (3.4) | | 월 200만원대 | 44 (13.6) |
| | 사별 | 9 (2.8) | | 월 300만원대 | 57 (17.6) |
| | 결측 | 9 (2.8) | | 월 400만원대 | 57 (17.6) |
| | | | | 월 500만원 이상 | 130 (40.2) |
| | | 결측 | 7 (2.2) | | |

로 가장 많았으며, 미혼인 경우도 31명(9.6%)이었다. 조사대상자의 학력은 대졸이 168명(52.0%)으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자들은 이미 대학을 졸업한 후 다시 공부를 시작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종교의 경우 기독교가 115명(35.6%)으로 가장 많았으며, 종교가 없는 경우도 82명(25.4%)으로 나타났다. 월가구소득은 월 500만원 이상이 130(40.2%)으로 가장 많았으며, 월 300만원 이상이 75.4%가 넘는 것으로 보아 조사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2. 주요변수의 특성

가.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본 연구 모형에 투입된 주요 변인은 노인부양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인식되는 보상과 비용, 부양에 관한 의식 및 노후설계이다. 이들 변수에 관한 기술통계분석에 관한 결과를 아래의 <표 2>에 제시하였다.

우선 조사대상자의 부양행동평가 중 노인부양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인식하는 보상의 전체 평균은 3.015점($SD=.740$)으로 중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용의 경우 평균 2.972점($SD=.883$)으로 중간수준보다 약간 낮아, 부모부양에 따른 어려움이나 부담을 보상에 비해 덜 인식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부양의식에 대해서는 평균 3.873점($SD=.504$)으로 중간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부모 부양의 일차적 책임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국내의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응답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자의 노후설계 변인은 신체적 영역, 정서적 영역, 경제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조사대상자들의 신체적 노후 설계는 평균 3.500($SD=.718$)으로 중간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나 노후의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준비를 어느 정도 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보다 미래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독을 견디는 힘을 길러두려고 노력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된 정서적 영역의 노후설계 또한 평균 3.636($SD=.581$)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응답한 것으로 볼 때 조사대상자들은 미래의 정서적 안녕감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영역의 경우 평균 3.441($SD=.789$)로 중간보다는 높은 수준이었으나 다른 영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비를 하고 있으

나 다른 영역에 비해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낮기 때문에 유추해볼 수 있겠다.

표 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분포특성

(N=323)

| 변수 | | 최소값 | 최대값 | 평균 (표준편차) | 왜도 (표준편차) | 첨도 (표준편차) |
|------------|-----|-----|-----|--------------|--------------|--------------|
| 부양행 동평가 | 보상 | 1 | 5 | 3.015(.740) | -.204(.136) | .770(.271) |
| | 비용 | 1 | 5 | 2.972(.883) | .067(.136) | -.254(.271) |
| 부양의식 | | 1 | 5 | 3.873(.504) | -.208(.136) | 2.538(.271) |
| 노후 설계 | 신체적 | 1 | 5 | 3.500(.718) | -.138(.136) | -.326(.272) |
| | 정서적 | 1 | 5 | 3.636(.581) | .155(.137) | -.198(.273) |
| | 경제적 | 1 | 5 | 3.441(.789) | .105(.137) | -.386(.273) |

나.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노후설계의 평균비교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노후설계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test 및 ANOVA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중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설계의 평균 비교 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3>에 제시하였다.

성별과 학력에 따른 노후설계의 평균은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 결혼상태, 월가구소득, 자녀수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이, 고졸이하의 학력자보다 대졸 이상자가 노후에 대한 준비를 더 실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연령에 따라 40대에 비해 50대 이상이 노후를 설계하고 준비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4.256, p<.001$). 이는 노년기가 가까워올수록 다가올 노후생활을 더욱 현실로 인식하게 되며, 이러한 인식이 노후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로 연결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배우자유무에서도 나타났다는데, 배우자가 없는 집단에 비해 배우자가 있는 집단이 노후에 대한 준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t=4.154, p<.001$).

월가구소득의 경우 또한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Scheffe 검증결과 월소득 300만원 미만의 가구에 비해 월소득 300만원~500만원, 월소득 500만원 이상의 가구가 노후설계를 더 많이 하였다($F=5.202, p<.01$). 이는 월소득 300만원 미만의 가구는 미

래에 대한 준비보다 현재의 소비가 더 우선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일 수 있으며, 또는 연령이 높지 않은 경우 월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관관계가 노후에 대한 준비를 늦추는 것일수도 있을 것이다. 자녀수의 경우 자녀가 1명인 경우가 2, 3명인 경우에 비해 노후 설계를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대상자의 연령이 자녀수가 많은 경우보다 적은 경우 더 적을 가능성이 있어 연령과의 상관관계가 해석에 반영될 수 있겠다(F=5.950, p<.05).

표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설계의 평균 비교

| 구분 | | 사례수 | 평균 (표준편차) | 구분 | 사례수 | 평균 (표준편차) | |
|-----------|--------|-----|--------------|---------------|-------------------------|--------------|--------------|
| 성별 | 남 | 122 | 66.66(10.89) | 월 가구 소득 | 월 300만원 미만(a) | 72 | 67.03(10.51) |
| | 여 | 200 | 67.61(10.41) | | 월 300만원 - 월 500만원(b) | 114 | 67.92(10.14) |
| | t | | .769 | | 월 500만원 이상(c) | 130 | 68.85(10.49) |
| 연령 | 40대 | 228 | 65.69(9.91) | | F | | 5.202** |
| | 50대 이상 | 95 | 71.05(11.20) | | Scheffe | | a<b, a<c |
| | t | | -4.256*** | | | | |
| 학력 | 고졸 이하 | 119 | 66.94(11.26) | 자녀 수 | 1명(a) | 45 | 63.03(11.10) |
| | 대졸 이상 | 184 | 67.19(9.89) | | 2명(b) | 190 | 68.71(10.33) |
| | t | | -.198 | | 3명 이상(c) | 51 | 69.16(9.66) |
| 배우자 유무 | 배우자 유 | 263 | 68.60(10.28) | | F | | 5.950** |
| | 배우자 무 | 51 | 62.06(10.24) | | Scheffe | | a<b, a<c |
| | t | | 4.154*** | | | | |

*p<.05, **p<.01, ***p<.001

※ 연령, 배우자유무, 학력, 월가구소득, 자녀수 변수는 t검증과 일원분산분석을 위해 범주형 변수로 재코딩하였음

다. 상관관계 분석 및 다중공선성 검토

독립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은 상관관계 계수와 VIF 혹은 Tolerance값을 이용하여 살펴볼 수 있다. 그 기준은 상관계수가 .80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을 고려해 봐야하며,

Tolerance는 1이하, VIF는 10이하인 경우 다중공선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우선, 각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관계 계수는 아래의 <표 4>와 같다. 결과를 살펴보면, 독립변수간 상관관계 계수가 .80이상인 변수가 없어 상관관계 계수 상에서의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 tolerance값은 .808~.985의 범위였으며, VIF는 1.020~1.238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표 4. 주요 변수간 상관관계

(N=323)

| 구분 | 1 | 2 | 3 | 4 | 5 | 6 | 7 |
|----------|---------|-------|--------|--------|---------|--------|---|
| 1. 연령 | 1 | | | | | | |
| 2. 가정월소득 | .052 | 1 | | | | | |
| 3. 자녀수 | -.049 | -.067 | 1 | | | | |
| 4. 보상 | -.009 | .051 | .051 | 1 | | | |
| 5. 비용 | -.213** | .103 | .076 | .105 | 1 | | |
| 6. 부양의식 | .136* | .047 | .009 | .375** | -.161** | 1 | |
| 7. 노후설계 | .155** | .138* | .152** | .228** | -.002 | .292** | 1 |

*p<.05, **p<.01, ***p<.001

라. 노후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자의 노후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며, 그 영향력은 어떠한지 검증하기 위해 노후설계 변인을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영역으로 세분하여 인구사회학적 변인, 보상과 비용, 부양의식이 미치는 영향을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의 <표 5>와 같다. 제시된 독립변인들로 구성된 각 회귀모형은 신체적 영역을 19.8%, 정서적 영역을 19.3%, 경제적 영역을 14.1%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성별은 신체적 영역과 경제적 영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은 여성에 비해 신체적 영역($\beta = -.154, p < .05$)과 경제적 영역($\beta = -.131, p < .05$)의 노후설계를 덜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노후설계를 더 구체적으로 준비한다는 김성숙(2006)의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성별이 정서적 영역의 노후설계에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반면, 연령은 정서적 영역의 노후설계에만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eta = .119, p < .05$). 즉 연령이 높을수록 정서적 영역의 노후설계를 더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나 경제적 상황 외에 노후의 질적인 삶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학력의 경우 노후설계의 전 영역에 걸쳐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으나, 월평균소득은 경제적 영역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 = .189, p < .001$). 다시 말해 건강이나 정서적 측면의 노후설계는 경제력과 상관없이 이루어지지만, 경제적 노후설계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더 준비하게 된다는 것이다. 소득이 높지 않은 경우 당장의 생활을 위해 비용을 소요하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노후자금을 준비한다는 이러한 결과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가정일수록 노후자금이 준비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신체, 정서적 영역의 노후생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배우자의 유무는 신체적($\beta = .129, p < .05$), 정서적($\beta = .136, p < .05$), 경제적 영역($\beta = .151, p < .05$) 전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배우자가 있는 조사대상자가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 더 노후설계를 준비한다는 결과인데, 이는 배우자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과의 상관관계가 반영된 결과로 예측된다. 이 외 자녀수가 많을수록 신체적 노후설계를 더 준비한다는 결과($\beta = .131, p < .05$)는 자녀들에게 돌봄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인식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으로 부양행동평가변인을 보상과 비용으로 구분하여 각 회귀모형에 투입한 결과 보상만이 신체적 영역의 노후설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beta = .206, p < .01$), 부모님을 부양하는 행동에 이득이 있을 것으로 인식할수록 자신의 노후 건강에 대한 노후설계를 더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정서적, 경제적 영역의 노후설계에는 부양행동평가변인 모두 통계적인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어, 조사대상자들이 인식하는 부양행동을 통해 발생하게 되는 이득이나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은 자신의 노후설계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은 노후설계영역 전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영향력 또한 컸다(신체적 영역: $\beta = .187, p < .01$, 정서적 영역: $\beta = .335$,

p<.001, 경제적 영역: β =.230, p<.001). 즉 중년기의 조사대상자들은 자신이 부양을 행했을 경우의 이득이나 비용 등 자신 중심의 현실적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부모의 부양을 자식된 도리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클수록 자신의 노후 또한 더욱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함으로써 노후에 대해 준비하게끔 하는 동기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의식이 높을수록 자식에게 기대고자 하는 심리도 더 클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측과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5. 노후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N=323)

| 요인 | | 신체적 영역 | | 정서적 영역 | | 경제적 영역 | |
|----------------------|----------------------|----------|---------|----------|---------|----------|---------|
| | | B | β | B | β | B | β |
| 인구 사회 학적 요인 | 성별+ 남성 | -.226* | -.154 | -.137 | -.118 | -.211* | -.131 |
| | 연령 | .014 | .104 | .013* | .119 | .009 | .063 |
| | 학력+ 고졸 | -.342 | -.231 | -.080 | -.068 | -.109 | -.067 |
| | | 대졸 이상 | -.232 | -.161 | -.057 | -.050 | -.111 |
| | 월가구소득 | 7.783E-5 | .073 | 1.377E-5 | .016 | .000** | .189 |
| |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 .354* | .129 | .318* | .136 | .468* | .151 |
| | | 자녀수 | .151* | .131 | .095 | .102 | -.039 |
| 부양 행동 평가 | 보상 | .204** | .206 | .046 | .059 | .019 | .018 |
| | 비용 | .086 | .103 | .057 | .087 | -.067 | -.073 |
| 부양의식 | | .271** | .187 | .384*** | .335 | .372*** | .230 |
| 상수값 | | .631 | | .912* | | 1.488* | |
| R2 | | .198 | | .193 | | .141 | |
| adj.R2 | | .168 | | .162 | | .108 | |
| F | | 6.507*** | | 6.252*** | | 4.315*** | |

주: +는dummy변수 처리한 것임(성별: 기준집단- 여성 / 학력: 기준집단- 중졸 이하 / 배우자 유무: 기준집단- 배우자 없음).

*p<.05 **p<.01 ***p<.001

V. 요약 및 논의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노후생활이라는 동일한 이슈에 대해 부모에 대해서는 부양을 요구받고 자신의 노년에 있어서는 자립을 책임져야 하는 상반된 가치 및 이중과업을 요구받는 현시대의 중년기 성인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연구과정에서는 이들이 부모부양과 노후설계의 두 과업들을 어떠한 수준에서 수용하고 양립 또는 통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전통적 효사상에 근거한 노부모 부양의식과 사회교환론적 관점에 근거한 부양행동평가가 개인의 노후설계에 갖는 영향력도 살펴보았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부양행동평가 중 노인부양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인식하는 보상 및 비용의 경우 중간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부양의식은 중간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노부모 부양의 일차적인 책임자로 인식하는 조사대상자의 효사상이 반영된 응답으로 보인다. 또한 노후설계 변인의 전체 평균은 중간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났고, 노후설계 변인의 하위 영역인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변인에서도 모두 중간 이상의 평균을 보여서 전반적으로 조사대상자들은 노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준비를 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노후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노후설계변인을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회귀모형은 신체적 노후설계를 19.8%, 정서적 노후설계를 19.3%, 경제적 노후설계를 14.1%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대상자의 부양행동평가는 노부모를 부양함으로써 예측되는 보상과 비용의 변인으로 세분화하여 노후설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으나, 신체적 노후설계에 대한 보상의 영향력 외에 두 변인 모두 정서적, 경제적 노후설계에 대한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은 노후설계의 전 영역에 걸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영향력 또한 컸다. 즉 중년기의 조사대상자들은 자신이 부양을 행했을 경우의 이득이나 비용 등 자신 중심의 현실적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부모의 부양을 자식된 도리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클수록 자신의 노후 또한 더욱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함으로써 노후에 대해 준비하게끔 하는 동기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노부모 부양을 순응적으로 수용하여 부양의식이 높은 중년기 성인인, 자신 역시 노후에 유사하게

자식에게 의존하고자 하는 기대심리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노부모를 부양하고자 하는 의식에 따른 부담감은 중년기 성인으로 하여금 자식에게 부담감의 유산을 남기고 싶지 않은 바램 및 동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추측도 가능할 수 있다. 한편, 노후설계의 하위영역인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영역에 각 독립변인들의 영향 정도를 파악한 결과, 부양행동평가변인인 보상과 비용 중 보상만이 신체적 영역의 노후설계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다른 정서적, 경제적 영역의 노후설계에는 부양행동평가 변인 모두 통계적인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부양의식은 노후설계 전체 척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가졌고 노후설계의 각각의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하위영역에 모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이 높을수록 자신의 노후설계의 구체적인 하위영역,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영역에 더 적극성을 갖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노후설계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test 및 ANOVA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과 학력에 따른 노후설계의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 결혼상태, 배우자유무, 월가구소득, 자녀수에 따라 노후설계의 수준은 차이를 보였다. 즉 연령이 높은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월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자녀수가 많은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노후에 대한 준비를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본 연구에는 분명한 제한점이 있다. 즉, 표집과정에서 연구대상자들을 2곳의 온라인대학으로 한정하여 설문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본 결과를 모든 중년기 성인에게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년기의 부모부양과 노후설계라는 이중 과제의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수행을 위한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중년층의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은 현재의 노인세대 보다 노후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관심을 갖고 있으며,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과 적극적 실천을 실시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하지만 중년층에서도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노후준비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노후준비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독려를 필요로 한다(이소정, 2009).

둘째, 전통적 가족관에서 비롯된 노부모 부양의식과 자립적 노후설계의 양자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본 연구 결과에서는 서로 정적인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

의 부양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노후설계 수준도 높다는 것이다. 사실상, 이 두 개념 간의 관계를 제시하는 경험적 연구가 충분하지 않아서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본 연구결과에서는 두 개념이 서로 가치상반적이지 않고 정적인 상호연관성을 가진 개념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이 높다는 것은 노인기에 당면할 수 있는 문제와 다양한 이슈들을 인식하는 것으로, 결국 이러한 의식이 자신을 위한 노후설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동기 및 대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김성숙(2006)의 연구에서도 기혼의 중년기 남성의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에 따른 자신의 노후생활계획과의 연관성을 조사한 결과, 남성과 여성 둘다 노부모의 집안일을 도와주는 부양의식을 가질수록 자신의 노후에 대한 정서적 준비도가 높았고, 특히 중년기 여성의 경우에는 노부모에 대한 동거여부에 상대적으로 수용적인 부양의식을 가진 부인일수록 따른 자신의 노후에 대한 높은 경제적 준비도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김성숙(2006)의 연구결과에서도 부분적이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부양의식을 가질수록 자신의 노후설계에도 적극적일 수 있다는 본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함을 알 수 있다.

셋째, 노부모에 대한 부양행동에 대한 평가를 ‘이득’으로 높게 인식하거나, ‘비용’ 소모로 인식하는 것은 자신의 노후설계와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양행동평가의 하위요인인 보상 및 비용에 대한 인식수준은 보통 수준으로 파악되었으나, 부양의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인식 수준을 보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중년기 세대에서는 아직도 노부모 부양의 일차적 책임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국내의 가족가치관 및 문화적 특성이 상대적으로 강함을 시사한다.

넷째, 연령이 높을수록 노후설계에 관심이 있고 배우자가 있을 경우 더 부부 중심으로 노후설계에 대해 적극적이다. 또한 여성일수록 노후설계에 대해 더 인식이 높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수명이 길어서 혼자 살아가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더욱 노후 준비에 대비해야 하는 의식을 갖고 있다. 이에 노후설계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여성이 갖는 긴 여생의 특수성에 민감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다섯째,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노후준비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물론 이러한 결과가 당연할 수 있으나 한편 경제적 수준이 낮은 가족일 경우 오히려 향후 노년기의 경제적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주목된다. 현실적으로 경제적 상황 및 노후문제에 있어서, 각 가족마다의 경제적 조건을 임의로 변경시키기는 어렵지

만 앞서 제시한 것처럼 노인기에 당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와 상황에 대한 이해를 통해, 노후설계의 동기를 높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본 연구를 통해 강조할 점은, 중년기 성인에게 있어서 부모 부양의 이타성과 개인부양의 독립성이 함께 공존, 발달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향후 진전 속도를 더해 갈 고령사회를 앞둔 현시점에서 가족체계 내에서 중년기 성인은 부모 부양의식과 자립적 노후를 동시에 지향하고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부모 부양의식이 개인의 자립적 노후설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갖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두 과제의 바람직한 양립을 가능케 하려면 무엇보다 가족구성원간의 상호 정서적 기능과 원만한 의사소통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전통적인 한국가족 내에 존재하는 지나친 권위의식 및 젊은 세대에 대한 통제력 확보보다는 상호호혜적인 긍정적인 관계형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성인 및 노인교육에서 이러한 부모-자녀간의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자신의 노후에 도움을 제공할 자녀 세대에 대해 전 가족주기를 통하여 친밀성 및 상호지원적인 관계로 가족관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국 그러한 노력이 부모에 대한 돌봄제공, 즉 노후의 보호제공 기제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이다. 또한 중년기는 자신의 노후설계의 주요 과제에서 자녀와의 관계를 검토하고 상호지지 및 지원적 관계를 유지 및 개선하는 노력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좀더 다양한 직종과 사회적 배경을 가진 중년기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중년기에서 남성과 여성의 부양의식 및 노후설계에 대한 차이, 특히 직장이 있는 여성과 전업주부인 여성, 단독세대 여성간의 차이를 알아보는 시도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노부모 부양의 주된 동기 및 근원이 상징적 상호작용에 근거한 전통적인 부양의식이든지, 또는 사회교환론적 부양행동 평가이든 간에 부양의식 및 평가라는 것은 단시간에 형성,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장시간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동반하는 것이므로 향후에는 과정적 변화의 탐색이 가능한 종단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인, 권금주, 이서영, 김동환(2009). 원격교육을 통한 e-노후생애설계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1), pp.191-211.
- 김명자(1991). 가족학 연구와 사회교환적 접근, 가족학 연구의 이론적 접근. 한국가족학 연구회편.
- 김성숙(2006). 중년기의 노부모부양관과 노후설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노인복지학과, 한서대학교, 충남.
- 김숙(2004). 기혼자녀의 노부모부양의식과 부양스트레스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노인복지학과, 한서대학교, 충남.
- 민무숙(1995). 노모와 성인 딸/며느리 간의 상호원조유형이 부양부담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회, 15(1), pp.74-90.
- 박재홍(1991). 사회교환이론성이 유용성과 적합성; 노부모 - 자녀 간의 연구의 경우. 사회구조와 사회사상, 서울: 심설당.
- 성규택(1995). 현대 한국인의 효행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9, pp.21-34.
- 신수진(1993). 성인초기 자녀의 부모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사회교환론과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접근-. 석사학위논문, 가정관리학과,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신화용, 조병원, Walker, A. J.(1997).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본 노부모부양과 재산상속의식: 한국과 미국의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pp.125-136.
- 양순미, 홍숙자(2012). 중년기 농촌여성의 노후준비와 관련변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pp.141-149.
- 오창순, 신선인, 장수미, 김수정(2010).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서울: 학지사.
- 윤진(1995). 성인 노인 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이가옥(1990).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가옥, 이미진(2000). 장기요양 보호노인 가족 수발자의 정서적 부야부담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20(2), pp.215-228.
- 이동욱(2003). 여성들의 노후준비와 자원접근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이소정(2009).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노후준비에 관한 인식과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147(1), pp.72-80.

- 이신숙, 서병숙(1994). 노모와 동, 별거하는 며느리가 지각하는 부양 스트레스의 결정변인의 탐색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0), pp.129-139.
- 이우복(1993). 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충북.
- 이호정(2008).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와의 관계가 노인에 대한 태도와 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 *교육문화연구*, 14(1), pp.75-103.
- 이효선, Garz, D.(2009).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이해. 경기: 공동체.
- 임정자(2002). 중년층의 노후준비가 중년기 위기감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전남.
- 전귀연, 배문조(2010). 성인기의 노후준비의식과 노후준비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1), pp.1-12.
- 최윤희(2004). 중년기의 부부관계 및 부양의식과 노후준비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노인복지학과, 한서대학교, 충남.
- 홍성희, 이정희, 박인숙, 김순미, 김혜연, 김성희(1998). 노년기 생활설계 프로그램을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중노년층의 노후생활 계획을 중심으로 -. *대한가정학회지*, 36(10), pp.1-22.
- Abel, E. K.(1986), Adult daughters and care for the elderly. *Feminist Studies*, 12, pp.479-497.
- American Medical Association(2001).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guide to home caregiving. Guide to home caregiving*. New York: J. Wiley & Sons.
- Ronald, W. T., David H. H., Debord, J. M.(2011). *Education and Support Programs for Caregivers*, Springer.
- Rossi, A. S., Rossi, P. H.(1990). *Of Human bonding : Parent-child relations ove the life course*. New York: Adine de Gruyter.
- Scanzoni, J.(1995). *Comtemporary families and relationships-reinventing responsibilities*. New York: McGraw-Hill.

Sheehy, G.(2010). *Passages in caregiving : turning chaos into confidence*. New York, NY: HarperCollins.

Walker, A., Pratt. C., Shin, H. Y., Jone, L.(1990). Motives for parental caregiving and relationship quality. *Family Relations*, 39, pp.51-59.

전혜성은 이화여대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이주대병원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서울사이버대 및 고려사이버대 전임교수로 근무하였다. 현재 미국 조지아주 AARC(Asian American Resource Center)에서 연구개발팀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신보건, 가족, 의료 등이며, 현재 정신장애인 부부, 이주가족 적응,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hsjeon0510@empal.com)

김미영은 이화여대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동남정신과 및 분당차병원에서 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 근무하였다. 현재 숭의여자대학교 가족복지과 전임강사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신보건, 의료, 가족, 다문화 등으로, 현재 정신장애인의 회복과 희망, 정신건강, 부부적응 및 가족 문제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kmy1012@naver.com)

The Relationships of the Caregiving Awareness, Caregiving Appraisal for Middle-aged and Senescent Life Plans

Jeon, Hyeseong

(Asian American Resource Center)

Kim, Miyoung

(Soongeui Women's College)

This paper was to explore the relations of the caregiving awareness, caregiving appraisal for middle-aged and their senescent life plans and the effects of caregiving awareness and caregiving appraisal for aged parents of on plans for their senescent life. This survey was conducted from March, 2011 to June, 2011 and 323 responses from the survey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data was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The research findings could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First, the mean score of senescent life plan and caregiving awareness were higher than average and the mean score of caregiving appraisal was a little lower than average. Second, among the main factors, caregiving awareness was the significant predictor to explain senescent life plan and it was totally related with physical, emotional, economical subscales of senescent life plan. Third, caregiving appraisal was the significant predictor to explain only the physical area of senescent life plan. Fourth, sex, age, marital state were the significant predictors which have the effectiveness to the senescent life plan.

Keywords: Caregiving Awareness, Caregiving Appraisal, Senescent Life Plan, Middle-aged